



'광주정신을 만나다-흥학관' 전시 흥학관 2층에 자리한 흥학관갤러리카페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2

‘흥학관’에서 광주의 숨결을 만나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이름 앞에 정신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주만은 예외이지요. 광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타 지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광주정신’이라고들 말합니다.”

최근 동구 구시청사거리 흥학관(興學館·옛 광산동 100번지) 2층에 개관한 흥학관갤러리(대표 이형철) 전시를 기획한 양성현 작가의 말이다. 그는 광주가 특별한 정신적 이미지를 갖게 된 데는 광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서도 ‘의’(義)와 ‘헌신’(獻身)을 핵심으로 꼽았다. 흥학관은 바로 의와 헌신을 상징하는 광주가 자랑할 만한 공간이다.

흥학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 부호 최명구가 1만여 원을 들여 지은 후 시민사회에 기증했다. 이곳은 광주청년학원과 광주청년회 사무실로 사용되며 지역 청년 활동 중심점이 됐다.

최근 2층에 문을 연 흥학관갤러리에서 광주정신의 역사와 뿌리를 조명하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광주정신을 만나다-흥학관’전은 당시 활동했던 사회단체들, 흥학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 흥학관과 광주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오랜 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돼왔

다. 건물도, 길도, 골목도 크게 변할 만큼 긴 세월에 흥학관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05년 전 흥학관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의미의 ‘흥학관 갤러리카페’가 들어선 것이다.

전시실에서 만난 양 작가는 “1920~1930년대 광주의 주요 사회계몽운동단체들 상당수가 이곳 흥학관에서 태동했다”며 “당시 청년운동의 양대 축이었던 광주청년회와 광주노동공제회가 자리했던 곳이며 광주여성야학과 광주노동야학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흥학관이 광주정신의 토대이자 의와 헌신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특히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이곳에서 계획되고 추진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 작가는 “1920년 조선인의 힘으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광주제일고등학교(옛 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 출발 또한 흥학관에서 비롯됐다”며 “1926년 항일 지하조직 성진회 외에도 1927년 한일단체 신간회, 1929년 광주여성들의 근우회 광주지회, 1933년 계유구락부 등도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임구에는 광주시 동구의 안내문 ‘흥학관 터’에 대한 내용도 부착돼 있다. “흥학관은 일제강점기 광주청년회, 광주신간회 등 사회 단체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으며 청년·노동자 등 시민을 위한 강연과 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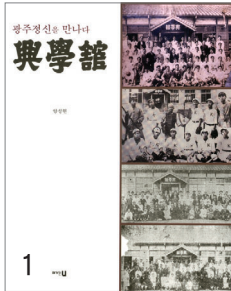
이 열린 곳이다. 또한 야구부 등 운동부의 체육시설로도 사용되었는데, 광주의 권투가 흥학관을 중심으로 보급되기도 하였다.”

‘흥학관의 현위치’라는 현판에는 이런 내용도 기록돼 있다.

“흥학관은 처음 설립 당시에는 서광산정 31번지, 이후에는 같은 위치가 주소지가 바뀌어 광산정 66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 동구 광산동에 구시청 사거리, 현재 광산동 100번지 일대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목조로 된 단층 건물로, 내부는 넓게 칸 마루가 있었다. 건물 바깥에는 마당이 있었다. 건물 내부는 광주청년회·노동공제회 광주지회·전남노동연맹·신간회광주지부·광주청년학원 등 광주지역 청년 및 사회단체의 회의장소, 공연장, 강연장, 야학의 교실 등으로 운영되었고, 넓은 앞마당은 야구, 정구 등 각종 스포츠행사장이나 행진의 집결지로서 집회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갤러리카페에는 전시를 관람하고 차를 마시는 방문객들이 자리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 이곳에서는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토론과 강연 등이 펼쳐지고 있을 것 같다.

전시는 이야기하는 방식을 차용해 스토리 전으로 구성했다. 흥학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문맹퇴치운동, 노동운동,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은 역사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 1 양성현 작가가 펴낸 ‘흥학관’
- 2 현대식 건물로 재탄생한 흥학관.
- 3 1920~1930년대 청년 활동의 중심지 흥학관.



흥학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이야기와 사진도 볼 수 있다. 최원순·현덕신 선생이 남긴 흥학관 사진을 비롯해 신문 속 희미한 이미지, 당대 기록들은 생명을 얻어 오늘에 현현된 느낌이다.

양 작가는 “1920년 광주 청년들의 공간으로 문을 연 흥학관은 시대를 고민하며 자주독립과 미래를 논의했던 장소였다”며 “이곳이 내일의 광주정신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하며 역동적으로 모색해가는 구

심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형철 대표는 “흥학관은 우리 광주의 자부심이었다. 항일운동을 이끌던 지사들이 시대의 아픔을 토론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던 장소였다”며 “그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펼쳐낼 현대적 이야기 공간, 바로 ‘흥학관갤러리카페’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과 사람’ ‘지역과 사람’ ‘사랑과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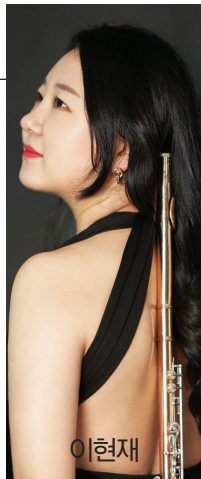
‘슬러앙상블’ 창단연주회…30일 광주예술의전당



김은정



이주이



이현재



김에론



박효인

음악과 음악이 이어져 하나의 선율이 되듯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섬세한 언어다.

새로운 실내악 단체 슬러앙상블(Slur Ensemble)이 오는 30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열고 첫 발을 내딛는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첫 무대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슬러앙상블은 음악 기호 ‘슬러(Slur·이음줄)’에서 이름을 따왔다. 음을 끊지 않고 이어 연주하라는 슬러 표시는 서로 다른 악기와 감정, 연주자와 관객, 지역과 개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엮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은 ‘음악과 사람’, ‘지역과 사람’, ‘사랑과 사람’이라는 세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연주자와 관객이 한 호흡으로 마주하는 순간에서 출발해 광주라는 공간이 지닌 기억과 정서를 선율에 담고, 가장 가까운 감정의 결을 음악으로 건넨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드뷔시의 ‘달빛’,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친숙한 작품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으로 무대를 채우며 공연의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에는 플루트 이현재, 클라리넷 박효인, 바이올린 김에론, 첼로 이주이, 피아노 김은정이 오른

다. 각기 다른 음색을 지닌 다섯 연주자는 다양한 앙상블 편성을 통해 곡마다 다른 밀도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독주와 합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내악이 지닌 친밀한 울림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슬러앙상블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서서 중심의 실내악 무대, 지역과 호흡하는 프로젝트, 청중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연주자 중심의 무대를 넘어 관객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실내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석 무료, 네이버예약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충장22, 2026 창작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

영상·문학·공연 등 18일까지 접수

‘충장22’는 한때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던 폐업 공장공장을 새롭게 단장해 탄생한 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충장로 4·5가 일대를 중심으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넓히는 지역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충장22문화사업단은 ‘2026 창작 레지던시’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한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감은 오는 18일이다.

영상·문학·시각예술·공연·다원예술 등 장르와 형식에 제한 없이 지역과의 관계 맺기에 관심 있는 국내 예술가를 위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예술가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입주하게 된다. 개인 작업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작업 발표 기회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전문가 네트워킹 등 창작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충장로 상권과 주민, 지역 기획자들과 협업하는 장소특정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충장22 레지던시는 예술가의



광주 동구 충장로5가에 위치한 문화예술복합공간 ‘충장22’의 모습. <충장22문화사업단 제공>

창작이 도시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올해도 실험적이고 동시대적인 작업들이 충장로 곳곳에서 시민과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 일정과 지원 방법은 충장22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보내는 우리가족 겨울방학

23일~2월 6일 ‘박물관 학교’ 진행
유물 감상·과학 실습·문화 체험 등

겨울방학을 맞아 박물관이 가족을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문을 연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전시를 보고, 만지고, 이야기 나누며 문화유산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초등학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우리 가족 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 방학 기간 동안 총 세 차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 규모로 1가족당 최대 4명까

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6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익산 미륵사지와 관련된 유물을 감상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박물관 보존과학을 직접 체험해보는 실습 활동, 전시 공간을 활용한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설명 위주의 수업을 넘어 가족이 함께 보고 느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전시실과 교육 공간을 오가며 문화유산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어린이에게는 박물관이 지식을 배우는 장소를 넘어, 경험과 호기심이 자라는 공간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익산박물관 홍보팀 박영미 “가족이 함께



국립익산박물관 전경. <국립익산박물관 제공>

문화유산을 매개로 소통하며 의미 있는 방학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에게는 박물관에 대한 친밀감을, 보호자에게는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신춘문에 당선 시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석연경 문학평론가 특강…8일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올해도 주요 신문의 신춘문에 당선자들이 발표됐다. 2026 신춘문에 당선 시는 어떤 경향성과 미학적 특징이 있을까.

신춘문에 당선 시를 주제로 하는 특강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는 시 창작아카데미 일환으로 ‘2026년 신춘문에 당선 시 특강’을 연다. 오는 8일 오후 4시이며, 강사는 시인인 석연경 문학평론가.

이번 특강에서 석 시인은 2026년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작을 중심으로 신문사별 심사 경향과 미학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주요 신문사의 당선 시를 비교 분석하며 소재와 주제, 화자와 언어, 내용과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또한 당선 시가 보여주는 시적

태도와 세계 인식 방식을 분석해준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예비 시인 개개인의 고민을 직접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부터 문학 전공자나 문인 등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석 시인은 “문학청년들이라면 꿈을 꾸게 되는 신춘문에 당선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강연은 영예의 당선작으로 선정된 시들의 면모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는 인문 문화 예술에 관한 연구와 교육, 출판과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등 15여 년 가까이 지역에서 인문 문화를 만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